



김민석 국무총리, 여수에서 해상풍력 업계와 현장 소통 가져

- 해상풍력 정책간담회 주재 및 전시참관.....업계 애로·기술동향 직접 확인
- 해상풍력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 의지 표명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6월 17일(수),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된 「2026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」에 참석,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해상풍력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,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.
 - 이번 간담회는 해상풍력 관련 기후부 등 정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, 공급망 기업들이 참여, 현장 산업계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김민석 국무총리는 “해상풍력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이며, 해상풍력의 경쟁력이 공급망의 경쟁력”이라고 강조하며,
 - “정부도 국내 공급망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라고 하였다.
 - 또한, 간담회를 계기로 해상풍력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감없는 의견 개진과 함께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하였다.

- 한편, 토론 시간에는 해상풍력 범정부 지원체계, 항만·선박 등 해상 풍력 인프라 확충, 인허가 지연 및 제도 변경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.
- 김민석 총리는 해상풍력산업에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며, “기후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방안이 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하였다.
- 한편, 정부는 3월 시행된 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하반기 출범 예정인만큼,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상풍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. 끝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김도현 (044-200-2216)
	안전 환경에너지정책관	담당자	사무관 유용상 (044-200-2218)
	기후에너지환경부	책임자	과 장 노진만 (044-201-7761)
	해상풍력발전추진단	담당자	사무관 나인찬 (044-201-7768)

□ **간담회 개요**

- (일시) '26.6.17(수), 10:30~12:00
- (장소) 여수 EXPO 컨벤션센터 B1(세미나실)
- (내용) 해상풍력 발전 정책 건의 및 토론 등

□ **참석자 명단**

- (정부) 총리, 기후부(2차관), 국방부(기조실장), 해수부(해양환경정책관)
- (지자체) 전남도(경제부지사), 여주시(부시장)
- (기관) 한국에너지공단(이사장), 한전(부사장), 남부발전(사장) 등
- (기업) 기자재 업체, 시행사 등 10개사
 - 기자재 두산에너빌리티, 대한전선, LS전선, 유니슨, GS엔텍 등
 - 시행사 명운산업, CIP, 한화오션, SKI E&S, Vena Group 등

□ **시간 계획(안)**

시 간		프 로 그 램
10:30-10:35	(5')	* 간담회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/ 한국풍력산업협회장
10:35-10:40	(5')	* 인사말씀 / 총리
10:40-11:25	(45')	* 해상풍력 발전 정책 건의 및 토론
11:25~11:30	(5')	* 마무리 말씀 / 총리
11:30-12:00	(30')	* 전시장 투어